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

## Influence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Adolescents in a Multicultural Home on Property Delinquency

김상운\*, 신재현\*\*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Sang-woon Kim(ksw48@naver.com)\*, Jae-hun Shin(enfant21@naver.com)\*\*

### 요약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세계화는 우리사회를 다문화사회로 만들었고, 갑작스러운 다문화사회의 형성은 아무런 사회적 대비 없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 많은 문제를 양산하였다.

특히,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과 다른 피부색, 눈동자 색을 가지고 있어 적응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 청소년기의 모든 행위들은 영향보다 가정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예상이 된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가정의 기능적인 특성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 중에서 부모의 양육방식이 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특성들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재산비행은 가정의 기능적 특성보다는 다른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능적인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향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을 살펴보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는데 의의를 가진다.

■ 중심어 : | 다문화사회 | 가정의 기능적 특성 | 가정의 분위기 | 부모와 관계 | 부모의 양육방식 |

### Abstract

Korea society has become a multicultural society by the mid-1990s. It is difficult to adapt to multicultural youth social acceptance without contrast.

In particular, Multicultural youth compared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home environment was much influenced by the growth. Multicultural youth has plain color, Eye color that general problems of the exchange is not easy, family-friendly social life, make friends and influence more than the home was subjected to environmental impact.

In other words, parenting is influenced by the family-friendly social life. multi-cultural families many of the country are concentrated in low-income. Consequently, the home environment is affected by property delinquency. This study was research targeting multicultural youth.

■ keyword : | Multicultural Society |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Home | Family Atmosphere | Parents and Relationships | Parenting Method |

\* 이 논문은 2013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접수일자 : 2013년 12월 20일

심사완료일 : 2014년 02월 21일

수정일자 : 2014년 01월 27일

교신저자 : 신재현, e-mail : ksw48@naver.com

## 1. 서론

199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빠르게 다문화사회로 형성되었는데, 시작한 시점을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1990년대 초반으로 상정한다면, 2010년도 다문화 인구가 약 120만 명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평균적으로 매년 6만 명 이상의 다문화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서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외래 인구유입 현상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1].

지금까지 유입된 많은 외국 출신자들은 돈을 벌기 위한 이주노동자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나라에 유입된 결혼이주자들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주로 중국·재중동포·태국·필리핀·베트남 출신자들이 대부분이고, 낮은 소득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낮은 수준의 한국어·한국문화 이해수준을 가지고 있어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정을 형성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들은 한국사회에 적응하기 전에 자녀를 낳고 기르게 되기 때문에 일차적 양육자로서의 역할에서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언어·사회·문화의 이해 수준이 떨어져 다문화청소년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청소년기의 가정환경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많은 선행연구에서 증명한 바와 같이 청소년기에는 가정의 환경적인 영향이 비행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가정은 자녀에게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삶의 자원과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승인된 사회규범을 내면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2].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은 가정환경적인 환경이 불량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생활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환경적인 요인 중 기능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기존의 선행연구와 관련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활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수집된 설문자

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s 18.0을 이용하여 이들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 2. 이론적 배경

### 2.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와 현황

#### 2.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의미하고 있으며, 두 가지 이상의 문화권에 걸쳐 성장한 청소년을 의미한다[3].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학자별 다양한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출신국적이 두 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에서 태어난 청소년을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고 정의한다.

#### 2.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

2012년까지 집계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20,180명에 불과하였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2012년 현재 46,954명으로 다문화사회의 구성원이 증가와 함께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12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현황 (단위: 명)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학생수	20,180	26,015	31,788	38,678	46,954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표수정>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출신지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이 전체의 약 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 일본이 27.5%, 필리핀, 16.1%, 베트남 7.3%, 태국 2.4%, 몽골 2.2%, 기타 10.7%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2012년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출신지 현황 (단위: 명(%))

소계	중국	일본	필리핀
46,954	15,882	12,933	7,553
100%	33.8%	27.5%	16.1%
베트남	태국	몽골	기타
3,408	1,136	1,021	5,021
7.3%	2.4%	2.2%	10.7%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표수정>

2012년 조사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이 33,792명으로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약 72%에 해당하고 있었으며, 중학생은 20.55%, 고등학생은 7.49%이었다.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서울·인천·경기 지역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보다 도(道)단위의 농·어촌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12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역별 현황

(단위: 명)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서울	5,427	1,384	674	7,485
부산	1,423	393	181	1,997
대구	906	254	57	1,217
인천	1,824	474	170	2,468
광주	793	234	59	1,086
대전	655	166	88	909
울산	566	124	29	719
경기	7,602	1,967	844	10,413
강원	1,591	643	188	2,422
충북	1,456	479	178	2,113
충남	2,141	676	224	3,041
전북	2,175	675	214	3,064
전남	2,678	863	196	3,737
경북	2,028	582	160	2,770
경남	2,178	660	229	3,067
제주	349	73	24	446
총합	33,792	9,647	3,515	46,954
계	71.97%	20.55%	7.49%	100.00%

<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www.mest.go.kr, 표수정>

## 2.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특성

청소년에게 가정은 가장 중요한 사회화 기관의 하나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자아상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가정·학교교육에 문제를 드러내고 있어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4].

그리고 일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발달과정상 언어적 자극이 충분하지 않거나 건강한 양육환경의 결여 등으로 인해 언어장애나 과잉행동장애 등의 문제를 나타내기도 한다[5].

그 밖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가정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부모의 영향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신체적 차이, 부모의 낮은 언어 및 문화이해 수준, 가정경제 여건의 어려움, 그 외 심리적인 문제해결의 어려움 등을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 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

### 2.3.1 다문화가정 청소년비행의 정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은 일반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라는 신분적인 차이만 있을 뿐, 비행을 저지르는 행위유형은 비슷하다.

비행은 일반적으로 짐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뜻을 가지고 있다. 비행이란 법률이나 학교의 규칙을 위반한 행위들로 구성되어 있으나 실제로 정의를 내리거나 측정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비행은 소년범죄 뿐 만 아니라 사회학에서 의미하는 경한 비행과 지위비행을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도 청소년비행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6].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대하여 정의해 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법에 저촉되는 행위인 범죄는 물론이고 범죄의 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그 사회에서 청소년에게 기대되는 규범에 벗어난 일탈행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 2.3.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의 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은 언어적 문제, 외모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문제, 이중문화로 인한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 다문화가정의 낮은 소득수준, 사회화의 부족으로 인한 또래관계 형성의 어려움 등 여러 가지 원인을 수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와 더불어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 교육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7].

우룡의 연구(2008)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부모들의 낮은 학력수준, 외모의 차이로 인한 따돌림 문제,

학업의 부진에 따른 고민 등으로 인해 적응이 쉽지 않다고 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8].

그리고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저소득층이 많으며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들로 인해 사회 정서적 어려움이나 학습·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부류의 아동보다 높게 나타난다. 문제성의 표현과 증상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자칫 간과하기 쉬우며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키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다[9].

Killias(1989)는 미국으로 이주해 온 서유럽 가정 자녀들의 비행에 대해 연구한 결과 자신의 목표와 현재 상황의 괴리감으로 인해 이주민 자녀들이 본국의 아이들과 비교하여 높은 비행율을 보인다고 보고하였다[10].

미국에서도 소수인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학습장애를 겪고 있으며, 특히 흑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2배 가까운 발달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1].

Leiber, Mack과 Featherstine의 연구(2009: 88-91)에서는 가정의 구조, 가정의 영향, 경제적 영향이 인종과 민족적 차이에 대한 연구결과, 어머니와의 애착이 강할수록 비행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종과 민족적 영향은 백인, 흑인, 히스패닉계 청소년은 인종별로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1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경험과 성장은 생애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미국에서도 소수인종의 다문화가정 자녀들은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학습장애를 나타내며, 특히 흑인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2배 가까운 발달지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3].

이렇듯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겪게 되는 정서적 문제, 발달지체, 학습장애는 친구관계의 약화 및 학교생활 부적응을 유발하여 ‘학교이탈’을 부추기고, 결국 비행을 저지르게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3. 연구의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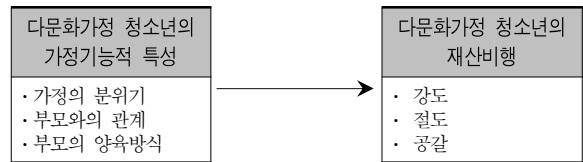
#### 3.1 분석의 틀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능적 특성

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기능적 특성인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이 재산비행인 강도와 절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표 4]와 같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을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을 강도와 절도로 설정하여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살펴 보았다.

표 4. 연구모형



#### 3.2 가설의 설정

가설 1.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공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3.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가정의 기능적 특성 중에서 가정의 분위기,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을 독립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수로 사용된 청소년의 재산비행은 재산비행 형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강도, 절도, 공갈을 변수로 설정하여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방법은 리커트(R. Likert)가 개발한 5점 척도의 형식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은 2013년 1월 서울, 부산, 대구지역의 다문화가정지원센터를 통하여 소개받은 다문화가정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받았다.

자료분석 방법은 변수들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

하기 위하여 신뢰도분석과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통계프로그램인 PASW Statistic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 4. 조사결과와 분석

#####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일반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특성이인 외국출신 부모의 구성, 국내에서의 출생 여부, 부모님의 출신국적 등을 살펴보았다.

먼저 설문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성별을 살펴보면 남자가 66명, 여자가 34명으로 남자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연령대인 '10세에서 13세까지'의 인원이 44명이었고, 중학교 연령대인 '14세에서 16세까지'의 인원이 40명이었으며, 고등학교 연령대인 '17세에서 19세까지'연령대의 인원이 16명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한국에서 태어났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는 한국에서 태어난 청소년이 38명이고, 외국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62명으로 나타났다.

표 5.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빈도(명)	비율(%)
성별	남자	66	66.0
	여자	34	34.0
나이	10세-13세	44	44.0
	14세-16세	40	40.0
	17세-19세	16	16.0
한국에서 태어났는지 여부	예	38	38.0
	아니오	62	62.0
거주기간	5년 이하	34	34.0
	6년-10년	54	54.0
	11년 이상	12	12.0
합계		100	100.0

설문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에서 생활한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거주기간 5년 이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34명, '6년-10년'간 거주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54명, '1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 4.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경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 경험을 크게 강도·절도·공갈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강도를 저지른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설문참여자 중 15명으로 나타났고, 절도를 저질러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35명으로 나타났으며, 공갈을 저지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23명으로 나타났다.

표 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경험

		빈도(명)	비율(%)
강도	경험 있음	15	15
	경험 없음	85	85
절도	경험 있음	35	35
	경험 없음	65	65
공갈	경험 있음	23	23
	경험 없음	77	77
계		100	100.0

##### 4.3 측정지표의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가정의 기능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가정의 분위기 5개 문항, 부모와의 관계 5개 문항, 부모의 양육방식 5개 문항에 대해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요인적재치가 0.5 이하인 항목을 분석에서 제외한 결과, 가정의 분위기는 제외된 문항이 없었고, 부모와의 관계는 2개 문항이 제외되었으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1개 문항에 제외되었다.

요인분석 이후 실시된 신뢰성 검증에서 각 구성개념들의 Cronbach' α 신뢰계수는 가정의 분위기 .890, 부모와의 관계 .847, 부모의 양육방식 .808로 모두 .60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가설 검증에 충분한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표 7. 가정의 기능적 요인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성분		Cronbach' α
		항목	요인적 재치	
가정의 기능적 요인	가정의 분위기	가정의 분위기1	.776	.890
		가정의 분위기2	.863	
		가정의 분위기3	.863	
		가정의 분위기4	.685	
		가정의 분위기5	.679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1	.857	.847
		부모와의 관계2	.700	
		부모와의 관계3	.685	
	부모의 양육방식	부모의 양육방식1	.777	.808
		부모의 양육방식2	.731	
		부모의 양육방식3	.782	
		부모의 양육방식4	.716	

4.4 가설의 검증

4.4.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강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8.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강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 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2.544	.542		4.693	.000
가정의 분위기	-.113	.123	-.126	-.923	.358
부모와의 관계	.059	.131	.064	.447	.656
부모의 양육방식	-.250	.135	-.216	-1.851	.067
R2 = .036 F = 2.237					

\*p<.05, \*\*p<.01, \*\*\*p<.001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다문화청소년의 강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분위기가 강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가정의 기능적 특성보다는 다른 특성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측이

되며, 청소년 비행의 특성 상 강도는 가정환경적인 영향보다는 친구요인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기능적 특성이 강도비행에 미치는 요인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4.2 가설 2의 검증

가설 2.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9.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절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 오차	베타		
(상수)	4.092	.616		6.638	.000
가정의 분위기	-.033	.140	-.030	-.234	.816
부모와의 관계	.034	.149	.030	.224	.823
부모의 양육방식	-5.590	.153	-.421	-3.847	.000***
R2 = .150 F = 6.843					

\*p<.05, \*\*p<.01, \*\*\*p<.001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다문화청소년의 절도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분위기가 공갈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부모와의 관계가 절도비행에 미치는 영향 역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양육방식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절도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확률 .000(t=-3.847)으로 나타나 부(-)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부모의 거친 양육방식 및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모의 양육방식은 절도비행을 조장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

가설 2의 분석결과 설명력은 15%로 나타났으며, F값은 6.84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2는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4.4.3 가설 3의 검증

가설 3.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공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10.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절도에 미치는 영향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2.544	.542		4.693	.000
가정의 분위기	-.113	.123	-.126	-.923	.358
부모와의 관계	.059	.131	.064	.447	.656
부모의 양육방식	-.250	.135	-.216	-1.851	.067
R2 = .084 F = 4.044					

\*p<.05, \*\*p<.01, \*\*\*p<.001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다문화청소년의 공갈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가정의 분위기와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양육방식 모두 공갈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3은 모두 기각되었다.

### 5. 결 론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반청소년과 다른 신체적·문화적 차이와 주변의 인식부족, 관련법 및 제도의 부족으로 인하여, 생활상의 어려움뿐 만 아니라 언어사용상의 어려움, 경제적 여건의 어려움, 청소년기의 심리적 문제, 사회적응의 어려움을 동시에 경험하기 때문에,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가장장적인 우리나라의 가정의 분위기와 달리 외국 출신 부모의 문화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일반청소년과 가정 분위기의 차이를 가지게 되어 주변인과의 관계형성 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각별하게 형성되어 가정환경적 요인 중 기능적 요인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부모의 양육방식이 외국 출신 부모의 출신국에 많은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수준이 낮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적응 능력이 떨어지고, 한국어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능력의 떨어져 학교부적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가정

환경적인 특성과 함께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피부색의 차이, 눈동자 색의 차이 등은 차별을 발생시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이 어려워지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 기능적 특성 중 가정의 분위기는 재산 비행 중 부모의 양육방식만이 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정의 기능적 특성은 재산비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첫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결과 다문화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능적 특성은 부모의 양육방식이 절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 이외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가정의 구조적 특성을 비롯하여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찾아 예방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두 번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활동 중 도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연구결과 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양육방식만이 절도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재산비행을 부추기는 원인은 친구와 학교생활에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학교 내에서 도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로서, 국내 다문화가정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표본의 수가 100건 밖에 되지 않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복합적으로 살펴보지 못한 방법론상의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연구에서 찾을 수 없었던 가정의 기능적 특성이 재산비행

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한 학계의 관심을 유발하고, 향후 이 분야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학술적인 연구를 이끌어 내는 데에 필요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제공한 것은 의미 있는 연구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1] 양현규, 이은상, 김종진, “다문화가정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관찰 대응방안 연구”, 보호관찰, 제10권, 제1호, pp.127-175, 2010.

[2] 기광도, “결손가정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분석”, 형사정책연구, 제77권, pp.41-70, 2009.

[3] 유난영,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제21권, pp.174-20, 2009.

[4]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123-147, 2010.

[5]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123-147, 2010.

[6] 김준호, 노성호, 이성식, 곽대경, 박정선, 이동원, 박철현, *청소년비행론*, 청목출판사, 2009.

[7]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123-147, 2010.

[8] 우룡, “우리나라 다문화청소년의 실태와 문제점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지도연구, 제13권, pp.31-53, 2008,

[9] 전재일, 신호선, “다문화가정자녀의 생활환경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개발연구, 제14권, 제3호, pp.251-283, 2008.

[10] 양문승, “다문화가정 범죄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공안행정학회보, 제44권, pp.69-107, 2011.

[11]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

호, pp.123-147, 2010.

[12] 신재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동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13.

[13] 장덕희, 신호선,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환경요인”, 청소년학연구, 제17권, 제3호, pp.123-147, 2010.

저 자 소 개

김 상 운(Sang-Woon Kim)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박사)
- 2012년 9월 ~ 현재 : 대구가톨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 경찰교육, 경찰인사, 조직관리

신 재 현(Jae-Hun Shin)

정회원



- 2008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경찰학석사)
- 2013년 2월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범죄학박사)

<관심분야> : 범죄학, 경찰학, CPTED, 감찰